

# January 26 도둑질, 나와 상관없는가?

• 사무엘하 12:1-15

**사람들은 왜 도둑질할까요?**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. ‘도둑질하다’에 쓰인 히브리어 ‘가나브’는 ‘타인의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오는 것’을 말합니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, 각 법전은 도둑질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도 도둑질은 여전히 만연한 죄입니다.

**누구든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.** 도둑질은 세상에서 위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‘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’ 하고 변명하거나 도둑질인지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윗도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했을 때,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(삼하 12:1-4). 심지어 그 부자가 ‘4배’나 배상해야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기까지 했습니다(삼하 12:6). 출애굽기의 배상법에 따른 명령입니다(출 22:1). 남의 일일 때는 법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, 사안을 내 위주로 생각하니 죄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.

**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에 동참하곤 합니다.**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파격 세일하는 물건을 구매합니다.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찾다가 결국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합니다. 누군가의 실수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. 불법 복제,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, 위조나 변조로 혜택 챙기기, 약물복용으로 메달 따기, 보험금 부풀려 수령하기 등 얼마나 많습니까?

**성경은 대가 없이 취한 모든 소득을 도둑질로 봅니다(약 5:4).** 놈물을 바치는 일(출 23:8),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(잠 21:6), 무게와 부피를 속여 장사하는 행위(암 8:4-6), 고리대금(출 22:25), 십일조와 현물을 드리지 않는 것(말 3:8) 등도 모두 도둑질의 범주에 속합니다.

---

나는 도둑질과 상관없는  
사람입니다?

- ❶ 인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행하던 도둑질은 없습니까?
- ❷ 도둑질을 방조하거나 동참할 때 어떤 평계들을 맙니까?